

전북새만금텍 공유대학 주 내용 소개

전북대, RIS사업 전북지역 공유대학 설명회 개최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 등 3개 전공 3월 출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9일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정부지원과 지자체 대응부자 등을 포함해 2,143억원이 투입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중심의 대학교육 대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주관대학으로서 RIS대학교육혁신본부(이하 RIS대)를 설립하고, 전북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원)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융합실무인재, 고급연구인재, 현장전문인재, 사회화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수송기기(주관대학 전북대)와 에너지신산업(주관대학 군산대), 농생명·바이오(주관대학 원광대) 등의 3개 전공을 설치해 모두 270명의 분야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JST 공유대학을 이끄는 3개 대학 단장들이 직접 나와 각 분야별로 융합전공 학부의 교육목

적과 인재양성 방향 등을 소개했다. 미래수송기기 분야 주관대학인 전북대 이덕진 단장은 "전북의 주력 분야인 자동차와 특장차, 농기계, 건설기계 등 기존 산업을 친환경 미래수송기기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며 "더불어 항공모빌리티(드론, UAM)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인재양성,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분야 주관대학인 군산대 장민석 단장은 "에너지신산업 학부는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생명·바이오 분야 주관대학인 원광대 최준호 단장은 "농생명·바이오학부는 지역연계 푸드테크 인력양성, 바이오소재 제조·개발인력양성, 데이터 기반 전북형 디지털농업(스마트팜) 주도형 인력양성, 자연환경 기반 지속가능 메디컬·바이오(바이오소재, 치유힐링) 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는 19일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융합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김현경 RIS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취업연계형 융합전공 교육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함으로써 지역 정주 혁신인재를 양성해 전북지역 발전과, 대학의 역할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등은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키퍼자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잡코리아 전북과 협약

전주대학교 미네르바학부는 JB Job & Consulting(잡코리아 전북, 이하 J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JB가 주도하는 '2023 미래 내일 일터 체험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북대 학생과 창업 아이템을 개발 중인 전주대 미네르바학부 3학년 기술경영공학 전공자들 간의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 교류 자리를 계기로 마련됐다.

기술 교류는 전주대 팀의 공중화장실 휴지 알람 시스템(ClearCall), 전북대학교 팀의 VR 챗 금융 교육 플랫폼(MetaFor), 진릉 콘텐츠 플랫폼(Tready) 등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다. /장은성 기자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

전북도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2023년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증정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임원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지회장, 마대열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썰은 그림책작가 '앤서니브라운'의 작품을 재탄생시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제작됐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도민 비학위과정 성료

호원대학교 K-미래인재대학이 전북도민을 위해 진행한 비학위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1월 13일 개강해 4개의 비학위 과정을 학습비, 재료비 전액지원을 통해 무료로 이뤄졌다. 12월 18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총 40여명의 성인학습자가 K-미래인재대학 비학위과정 수료증을 취득했다.

이번에 진행된 4개의 비학위과정은 △K-뷰티소재학과의 '네일&케어 아트 과정' (이선영 교수), '천연화장품만들기 과정' (김영진 교수), △K-푸드창업학과의 '함토크푸드스타일리스트 과정' (강나영 교수) △K-콘텐츠제작학과의 '숏폼 콘텐츠 제작과정' (이시은 교수) 등이다. /장은성 기자

내년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용

도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마련

내년 초등 2학년까지 확대... 개발지구 3곳도 1학년에 적용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춘다.

전북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교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적용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지역 27명·읍 지역 26명·면 지역 25명으로, 내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지만 초등 1~2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 개발지구 학교는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개발지구 7개교 중 3개교는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장은성 기자

최근 학생 수 감소 추세로 교실 확보 가능한 전주온빛초·전주양현초·전주민성초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초등 2학년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개발지구 4개교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기준이 유지된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올해 초등 1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낮아진다"면서 "향후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페인 주요 대학과 학생 교류체계 구축

세비아·말라가대학교 찾아 복수학위제 추진 등 논의... 유학생 5000명 유치 일한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유학생 5천명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 11일부터 스페인 2개 대학을 방문해 실질적인 학생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스페인의 주요 국립대학 중 하나인 세비아대학교를 찾은 양 총장은 이 대학 국제협력 관계자들을 만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복수학위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말라가대학교 국제처를 방문해 양 대학 간 교환학생 확대 방안 및 교환학생 추진 시 마이크로디그리 수료 방안과 공학 분야 복수학위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어전공이 있는 말라가대학



스페인 세비아대학교를 방문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일행이 대학 국제협력 관계자들과 학생 교류와 관련된 논의를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교 동아시아학부를 직접 찾아 전북대가 자랑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필리코리아'를 소개하고,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환학생 +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말라가대학교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북대 학생 6명과 간담회를 갖고 교환학생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유럽과 아프리카 주요 대학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 교류 성과를 올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해외대학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유학생 5천명 유치의 기반을 닦고,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부안 백련초 학생들.

(사진=백련초등학교 제공)

'부안 백련초, 오래 기억되길'

내년 폐교 앞두고 전교생 참여 동시집 '코딱지' 출간 달걀 판매 수익금 전액, 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탁

부안 백련초등학교(교장 김중숙)가 내년 폐교를 앞두고 '백련 작가육성 및 나눔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24년부터 부안 하서면의 백련·장신·하서초 등 3곳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폐교를 앞둔 백련초의 이번 행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쓰기 공부를 시작한 전교생 8명은 1년 동안 직접 쓰고 그린 작품들을 모아 동시집 '코딱지'를 발간했다.

특히 이날 동시집 출간 기념과 더불어, 1년간 모은 달걀 판매 수익금 전액(63만7,000원)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백련초의 나눔실천은 지난 2021년 13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48만 6,000원, 올해는 63만원 등이다. /장은성 기자

한편 백련초는 학교 내에서 직접 닭을 키우는 체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나누고 있다.

김중숙 교장은 "폐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생각에서 무언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우리 아이들 이름의 시집을 출간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시작했고, 열정있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8명 아이들의 동시를 모아 엮은 정도면 교사는 "백련초에서 아이들과 보낸 특별한 시간들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와 너무나 감격스럽고, 동시를 읽으며 백련초가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

지속 교육재정 확보 위해 우선순위 설정 따른 투자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14개 지표)에 대해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선 노력을 기울인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전북교육 기반방향에 토대로 교육투자 수요를 전망하고, 미래교육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해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강



전북도교육청 전경

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 등 각종 사업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 마인드 향상

도교육청, 해외연수 성과보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직업계고 학생 해외연수 성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및 직업계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의 소감을 들었다.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직무연수 및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 인턴십 1기는 지난 10월 8일부터 6주간 시드니에서 기계가공, 용접, 원예조경, 조리, 제과·제빵 등 6개 분야 29명이, 2기는 지난 10월 28일부터 6주간 브리

즈번에서 말사육, 사무회계, 자동차 정비 등 6개 분야 28명이 각각 참여했다.

호주기술교육대학에서 4주간 호주 표준 자격기준(AQF)에 맞는 실무교육 이수 후 TAFE 이수증을 취득하고, 이후 기업체에서 2주간 전공 분야에 맞는 인턴십도 진행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시드니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농학생축회에서 입상한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도 실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6주간의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인턴십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수업 등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